

하나님의 신(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이다

성령으로 거듭남, 부활, 순교는 모두 동일한 뜻

영생의 확신이 가득 찬 마음이 있는 사람은 손바닥을 세계 차라고 말할 하지 않아도 자연히 세계 차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보면 영생의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손바닥을 힘 있게 쳐요. 아시겠어요? 손바닥을 힘 있게 치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거지, 손바닥을 요렇게 (힘없이) 치는 사람은 지옥가요. '지옥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손바닥 그렇게 치지 마세요. 있는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손뼉을 치세요. 아시겠어요?

성경 말씀도 짝이 맞아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담과 해와가 에덴동산에서 살았다고 그랬죠? 에덴동산은 하늘나라요 천국이 되는 것이옵시다. 그런고로 아담과 해와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의 한 사람인 고로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무궁토록 살다가 육천년 전에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은 마귀가 모방력이 있는 고로 마귀가 빛의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고로 아담, 해와 하나님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순간 아담과 해와의 눈을 통하여 마귀의 영이 몸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하여 아담과 해와의 주제 영이 되는 '나라는 의식이 하나님의 영이었으나 마귀가 침투해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영을 마귀 속에 가두어 놓고, 마귀가 나라의 주체의식이 되는 순간 아담은 남자가 되고 해와는 여자가 되고 말았던 거죠?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해와가 사람이 된 시초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흠을 빚어서 아담과 해와를 만 들었다고 쓰인 말은 거짓말이요, 그 말은 마귀가 시켜서 쓴 말인 고로 그것은 하나

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거예요. 그런고로 성경 이사야 34장 16절에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나니라 이는 여호와와 입을 모았음이라"하는 말씀이 쓰여 있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짝이 맞아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짝이 없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누구 말이예요? 마귀 말이라는 소리죠? 그런고로 마귀가 흠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한 말은 뭐냐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의식을 없애버리기 위해 한 말인 거예요. 흠을 빚어 사람들을 만든 것이니까 절대로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흠을 빚어서 만들었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 쓰여 있죠?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고 쓰여 있는데 선악과가 무엇인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짝을 맞추어 해석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다. 짝을 맞출 때에 서로 이치에 들어맞는 말씀이 된다.

선악과란?

선악과라는 말 자체가 성경 말인데 성경 말은 전부 영적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고로 영적 과일이 되는 거죠? 영적 과일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거죠? 영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거죠? 신은 신인데, 선악과를 먹고 죽었으니 죽이는 신이요? 그런고로 죽이는 신이 마귀 신이요?

마귀 신이 사망의 신인 고로 사망의 신이 되는 마귀 신이 나라의 주체의식의 자리에 있는 고로 나라의 주체의식이 주장



구세주 조희성님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피가 썩는다는 것을 이 세상의 과학자들도 모르고 이 세상의 학자들도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어와서 주체영이 됨으로 말미암아 피를 통하여 자손들에게 아담과 해와 조상의 피가 계속해서 흘러왔던 고로 자손들이 마귀의 영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거죠? 그런데 오늘날 유전과학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도 이것을 알아야? 이걸 모르죠? 분명히 조상 속에 있었던 나라의 의식이 되는 마귀영이 자손들 속에 물려받아서 있는 고로 아담과 해와가 먹은 선악과가 자손들 속에 있다고 해야 말이 맞는 거죠? 유전과학이라는 것은 조상의 것을 몽땅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속에 있었던 선악과가 후손 속에 있어야 맞아, 안 맞아? 후손 속에 있어야 맞죠? 이 사람이 과학적이면 서로 합리적인 논리를 논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 "이 세상에 학문이 없다."는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런고로 나라의 의식이 선악과인 고로 선악과가 바로 사자귀신이요, 사자귀신이 바로 마귀 새끼인 고로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나라의 의식이

사람의 주인인데 나라의 의식이 마귀이니까, 사람이 마귀야, 사람이 마귀가 아니야? 사람이 마귀예요. 아시겠어요?

'부활'이라는 말은 성경 말이요 성경 말은 영적 말인 고로 영적부활을 말하는 거지, 예수의 몸이 죽었다가 몸이 다시 살

사람의 나라는 의식이 마귀의 영이므로 사람은 마귀의 형상을 입었다고 해야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마귀 형상을 입었다고 말할 해야 맞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해야 말이 맞아? 마귀 형상을 입었다고 해야 말이 맞죠?

성경 말씀은 영적 말씀인고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런고로 성령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게 성경적인 말이야, 비성경적이 말이야? 비성경적인 말이죠?

그런고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라는 말이요?

성경에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이 또 쓰여 있죠?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왜 했느냐 하면, 현재 사람들의 '나라는 의식이 마귀인 고로 마귀 안에서 행하고 있는 고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나라는 의식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이요, 또 한 부활했다는 말도 되는 거죠?

있다는 말은 그게 영적 말이야, 육적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성경을 육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영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육적으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말인데 육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거야, 잘못 해석하는 거야? 잘못 해석하는 거죠?

성경에 순교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순교자라는 말도 역시 성경 말인 고로 영적 순교를 말한 거지, 육적 순교를 말한 것이 아니죠? 스테반이 예수를 증거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해가지고 제1번 순교자라고 기독교인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건 순교자가 아니에요.

육적인 순교는 순교가 아니고 영적인 순교를 말하는 고로 영적인 순교는 뭐냐 하면, 마귀가 되는 '나라는 의식이 죽어서 하나님인 되는 것을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함을 얻은 것이 역시 순교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역시 순교자요? 이렇게 성경의 뜻은 하나님에 여러 갈래의 말로 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와야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거지, 주인공이 아니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마귀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주인공인 하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성경을 바로 가르쳐 주게 되는 거죠?*

2001년 5월 11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5장 모세>>

(6) 제사장 이드로 집 뒤편의 호렙산에 나타나신 하나님



(6) 제사장 이드로 집 뒤편의 호렙산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는 그 후 40년 동안 미디안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모세가 우거하는 바드 마을은 앞에 탁 트인 홍해가 바라보이고 뒤에 하나님의 산타오스산: 일명 호렙산 또는 시나산이 감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어느 날이었습니까. 모세는 아내의 아버지인 미디안 제사장의 양떼를 몰고 넓은 벌판으로 나갔습니다. 그 벌판 한 가운데는 시내 산이 있었고, 그 줄기에서 뻗어낸 호렙산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불리어졌습니다.

모세가 양떼에게 풀을 먹이다가 문득 바라보니까 떨기나무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은 불꽃을 날리면서 언제까지나 꺼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무심코 지나쳐가다가 내가 돌이켜 가서 그 놀라운 광경을 좀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우려보아야 할 하나님을 뵈기가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나는 애굽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들의 괴로움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내어 젓과 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데려오려고 한다. 그 일을 위하여 너를 애굽 왕에게 보내겠다. 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것이니라."

뜻밖에 중대한 책임을 짊어진 모세는 자신이 서지 않아 다시 여쭙았습니다.



불타는 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

"제가 어떻게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모세가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염려 말고 가거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라오스산(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내가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시 모아 놓고, 그들에게 '나 여호와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어 젓과 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도록 작정하였다고 일러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할길을 곁여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 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 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애굽 여인들에게서 은붙이와 금붙이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애굽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그래도 모세는 자신이 서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여쭙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팡이입니다."하고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지팡이를 땅 위에 던져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손의 지팡이를 땅 위에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